

지역 소식통

정읍시, 동계 아르바이트

참여 대학생과 간담회

정읍시가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겨울방학 동안 시정 업무에 체험한 대학생 35명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시정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주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행정 현장을 경험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근무하며 느낀 솔직한 소감과 시정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학생들의 활동 소감문 발표를 시작으로 이학수 시장과의 격의 없는 대화,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대학생들은 각자 근무지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음을 시사했다.

한편, 시는 청년들에게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방학 기간을 활용한 대학생 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여름방학에도 51명의 대학생을 선발해 운영한 바 있으며,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앞으로도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설 명절 부안사랑

상품권 추가 충전 시행

부안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오는 9일 추가 충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충전되는 부안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10%, 1인당 월 충전 한도는 5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고향사랑페이 앱과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추가 충전을 통해 설 명절 기간 중 상품권 이용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소비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성료

부안군수, 13개 읍면 순회... 군민과 올해 군정 운영 방향 공유· 11개 경로당 방문 등



부안군은 지난 26일 부안읍을 시작으로 5일 위도면까지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결실창래(結實蒼來)' 2026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26일 부안읍을 시작으로 5일 위도면까지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한 '결실창래(結實蒼來)' 2026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소통대회는 2026년 군정 슬로건인 '결실창래'의 의미를 군민과 공유하고, 군정 주요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군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군민과의 소통대화 자리에서 부안 대도약 3대 추진 전략인 부안형

바람연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부안 철도시대(T자형 철도망 구축)를 중심으로 2026년 군정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군민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사항을 폭넓게 논의했다.

희망소통대회는 읍면별로 사회단체장 간담회, 읍면정 주요 업무 보고, 군정비전 설명,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 이후에는 마을 경로당 등 생활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행정 중심의 소통을 병행했다.

부안읍을 시작으로 주산·동진, 행안·줄포, 계화·변산, 백산, 상서·하

서, 보안·진서 등 13개 읍면에서 연이어 소통대화가 열리며 지역별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또 이번 희망소통대화에서는 각 읍면별로 근농인재육성장학과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을 시작으로 행사가 진행돼 지역 주민은 물론 출향 인사, 기업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인재 육성과 부안발전을 위한 뜻을 함께 나누는 의미있는 장이 마련됐다. 마지막 일정인 위도면에서는 실내게이트볼장 개관식과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에 이어 11개 경로당을 순회하는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직접 점검했다.

군은 이번 희망소통대화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즉시 처리 사항, 부서 검토 후 추진 사항, 중·장기 검토 과제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3개 읍면을 직접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간이었다. 식도 경로당 방문을 끝으로 올해 연초 현장행정을 뜻깊게 마무리했다"며 "희망소통대화를 통해 제시된 건의를 군정에 충실히 반영해 '결실창래'의 이름에 걸맞은 성과를 만들어 내고 부안의 다음 10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위도 실내게이트볼장 준공식· 운영 본격화

총 사업비 23억원 투입... 사계절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시설· 어르신 여가 기회 확대

부안군은 5일 권익현 부안군수와 부안군의회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도 실내게이트볼장 준공식을 개최하고 사계절 이용 가능한 전천후 생활체육시설로서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이번에 개관한 위도 실내게이트볼장은 총사업비 23억을 투입해 지상 1층, 연면적 499.29㎡ 규모로 조성되었다.

게이트볼 경기장을 중심으로 사무실과 화장실, 창고 등 부대시설을 함께 갖춰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안군은 이번 시설 조성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위도의 생활체육 여건이 개선되고, 기상 제약 없는 체육 활동 환경으로 어르신 건강 증진과 여가 기회 확대, 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주민 소통과 화합을 이끄는 활력의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안군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체육시설 확충 사업도 원활히 추진해 군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민원서비스 '최우수'

2022년 최하위서 4년 만에 경총... 전국 지방정부 중 도내 유일 선정

고창군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민선8기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가 돋보이고 있다. 특히 민선 7기 말 최하위 수준(2022년 마 등급, 2023년 라 등급)이던 민원평가를 4년만에 최우수로 끌어올린 고창군의 저력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4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 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전국(243개) 지방정부 중에서 단 25곳만이 선정됐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고창군이 유일하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책임성 △국민신문고 민원의 체계적 관리 △민원 만족도 제고

노력 △취약계층을 배려한 민원서비스 운영 등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창군 민원만족도 평가는 군민행복을 최우선한 심덕섭 군정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심덕섭 군수 취임과 함께 군정슬로건을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으로 정하고, '민원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우선 '민원서투 간소화 전면실시'를 비롯해 민원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강화에 노력했다.

또한, 심덕섭 군수도 주말과 휴일에 민원현장을 찾았고, 매년 초 열리는 나눔대회 건의사항이 군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면서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고창=김영성 기자

농경지 침수 예방 노후 용배수로 정비

정읍시, 시비 136억원 투입· 영농철 시작 전 관내 208곳 정비

정읍시가 올해 시비 136억원을 투입해 관내 208개소의 노후 용배수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 공사를 마무리해 농경지 침수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비 사업은 최근 빈번해진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강우 강도가 세지면서 기존 배수로의 용량 부족이나 노후화로 인한 농가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정비 대상은 토사로 이뤄져 배수 효율이 떨어지는 구간이 주를 이룬다. 시는 이곳에 벤치플롭관 등 현대식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름철 집중(수초) 발생을 억제해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집중호우 시에도 안정적인 통수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상습 침수 구역을 위해 사업비 10억2,000만원(도비 5억3,000만원, 시비 4억9,000만원)을 투입해 별도의 정비 사업도 병행한다. 사업지는 △재해위험 방재시설 사업(용배수로 3건, 0.97km) △신태인 신용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북면 마정1지구 대구회 경지 정리 사업 등이다.시는 현재 진행 중인 실시계획을 조속히 완료하고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읍면동장, 생활 민원 신속 해결

시행 3주 만에 150여 건 해결

정읍시가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 밀착형 행정을 추진한 결과 시행 3주 만에 150여 건의 생활 민원을 해결하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시는 지난 1월 셋째 주부터 읍·면·동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현장 중심 생활민원 대응'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민원이 접수된 후에야 처리하던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행정 책임자가 직접 현장을 돌며

시민의 불편 요소를 먼저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읍·면·동장들은 주요 생활권을 순찰하며 도로 파손, 교통 안전시설 미비, 환경 정비 상태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특히 단순 민원 접수에 그치지 않고 현장 확인을 통한 선제적 조치와 신속한 후속 관리를 병행함으로써, 민원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도 시행 3주 차인 현재까지 총 150여 건에 달하는 생활 민원이 현장 점검을 통해 발굴·처리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